

제2검정소 첫 경매에서 챔피언돈 배출한 성암종돈장



본회가 경남 하동에 설립한 제2검정소 첫 경매에서 영예의 대요크셔 챔피언을 출품한 성암종돈장을 찾았다. 성암종돈장은 지난 8월 6일 제2검정소에서 열린 제1차경매 기념식에서 최상백부회장(제2검정소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챔피언기를 수여받았다.

성암종돈장(대표: 이봉환)은 경남 울주군 언양인터체인지에서 밀양방면(국도)으로 약 7km 떨어진 경남 울주군 상북면 궁근정리 18번지(전화: 05

22-62~1511)에 위치해 있다. 교통이 편리한데다 주위에 양돈장 등이 없어 종돈장으로서 는 위생적인 면에서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비록 농장 규모는 크지 않지만, 지난 85년 8월에 농장을 인수한 후부터 본격 종돈개량에 착수, 세밀한 계획하에 우리나라 여건에 맞고 능력이 우수한 종돈생산에 농장의 승부를 걸어왔다. 그 결과 농장설립 5년만에, 그것도 제2검정소 첫 경매에서 챔피언을 배출하는 영광을 안은 것이다.

영국 NPD수입종돈, 검정소 챔피언돈으로 기초돈군 구성

농장 규모는 랜드레이스 모돈 35두와 대요크셔 모돈 30두, 종모돈 11두와 자돈, 육성돈 등을 합해 모두 750두 규모이다.

성암종돈장은 「최고능력의 종돈생산」을 모토로 삼고 '87년부터 영국의 NPD사에서 슈퍼급의 종돈을 수입했고, 제1검정소에서 챔피언돈을 직접 구입, 기초돈군을 구성했다. '87년 NPD사에서 대요크셔 수퇘

지 5두와 랜드레이스 수퓌지 3두, 랜드레이스 암퓌지 8두 등 16두를 수입한 후, '89년에 대요크셔 수퓌지 2두, 금년에 대요크셔 수퓌지 2두 등 모두 20두의 종돈을 수입했다. 랜드레이스 2두는 임신한 것을 들여왔다. 그리고 제1검정소에서는 34차와 38차 경매에서 챔피언돈을 구입했다. 기초돈군의 능력에 따라 종돈장의 성패가 가름된다는 점을 중시, 가격이 비싸더라도 능력이 우수한 것만 골라 구입했다.

'87년에 NPD에서 도입한 랜드레이스는 일당증체량 1,110g, 사료요구율 2.04, 등지방두께 1cm였고, '89년에 도입한 대요크셔 2마리도 일당증체량 1,120g, 1,280g, 사료요구율 1.97, 1.88, 등지방두께 0.8cm, 1.1cm짜리로 우리나라에서는 최고능력의 수준이다. 또 금년에 도입한 대요크셔 2마리도 일당증체량 1,350g, 1,190g, 사료요구율 1.95, 1.88, 등지방두께 1.2cm, 1.0cm짜리인 것이 한국축육협회에서 발급해 준 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89년과 '90년도에 수입한 대요크셔 4두는 NPD에서 정한 「슈퍼돈」으로 수입돈의 평균가격보다 2배이상 비싸게 들여왔다.

그리고 제1검정소 38차 경매



▲ 제1검정소 첫경매에서 대요크셔 챔피언기를 수여받는 성암종돈의 이봉환 사장 (오른쪽은 본회 최상백 부회장)



▲ 농장 앞에서 동생 이시환씨와 함께 포즈를 취한 이봉환 사장.

〈표〉 성암종돈장의 영국 NPD 수입종돈 능력

수입년도	품종	일당증체량	사료요구율	등지방두께
'87	L	1,110g	2.04	1.0cm
'89	Y	1,120g	1.97	0.8cm
	Y	1,280g	1.88	1.1cm
'90	Y	1,350g	1.95	1.2cm
	Y	1,190g	1.88	1.0cm

* 한국축육협회 발급 증명서 자료임.

에서 구입한 랜드레이스 챔피온도 일당증체량 1,116g, 사료 요구율 2.19, 등지방두께 1.59 cm, 선발지수 232로 검정소 출품 랜드레이스중 가장 높은 성적을 기록한 것이었다.

이같이 우수한 능력의 종돈을 기초돈군으로 확보하여 종돈개량을 해온 결과 이번 제2검정소 첫 경매에서 챔피온돈을 배출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번 제2검정소 첫 경매에 출품한 대요크셔 챔피온은 '89년에 NPD에서 수입한 애비와 '87년에 NPD에서 수입했던 어미의 후대를 교배시켜 생산한 것이다. 챔피온의 성적은 일당증체량 968g, 사료요구율 2.19, 등지방두께 1.12cm, 선발지수 225점이었다. 1차경매에는 동복 3두도 함께 출품했는데, 동복의 선발지수는 217점, 199점, 194점으로 한마리도 불합격없이 100% 합격률을 기록했다.

가족중심으로 농장 운영하기 때문에 철저한 개체관리 가능

이같이 「슈퍼돈」을 기초축으로 개량을 해온 결과 이제 등지방두께와 사료요구율은 개량의 한계점에 근접할 정도로 개량이 완비되었다. 그러나 NPD돼지가 대부분 국내에 들여왔을 때 지체가 약하고, 번식성적이

▶성암종돈장이 제2검정소 첫경매에 출품한 챔피온 모돈. 선발지수 225점을 기록했다. 대요크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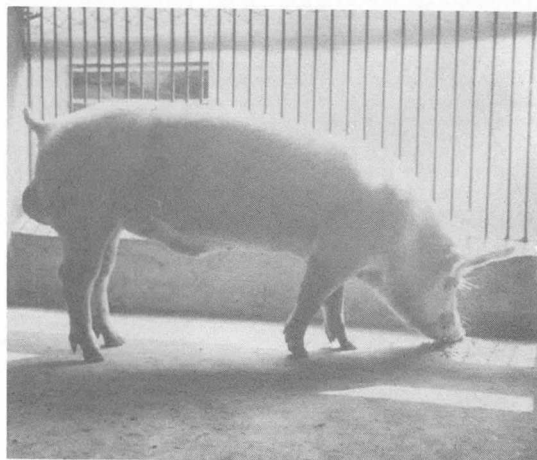
떨어지는 문제점도 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하우도 축적하고 있다. 성암종돈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체가 강건한 방향으로 개량하는 선발 노하우를 개발하는 한편, 사료의 영양을 보강(첫 종부때까지 젓먹이사료 50%, 포유돈사료 50% 섞어서 급여)해 주고 있다. 또, 돈사바닥엔 톱밥과 깔짚을 깔아주고 다른 계통의 피를 30% 섞어서 양돈농가에 분양해 줌으로써 피해가 없도록 하고 있다.

성암종돈장은 부근에 양돈장이 없어 AR이 없는 위생적인 종돈을 생산하는 한편, 가족중심으로 농장을 경영해 돼지관리를 철저히 하고, 사후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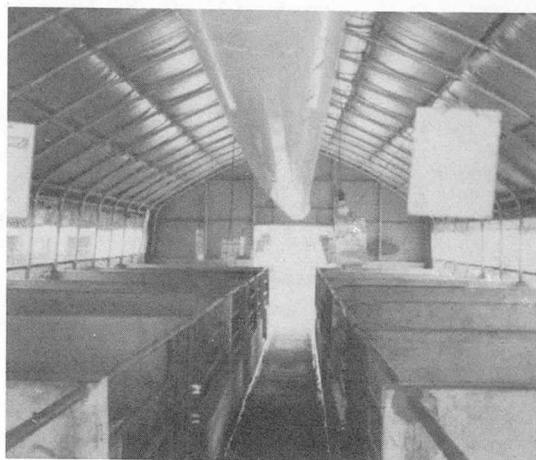
도 철저하다. 즉, 종돈업은 한번 팔고 그만두는 1회용 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가족중심의 철저한 개체관리를 통해 개량을 해나가고 있다.

농장은 사장인 이봉환씨와 남동생 이시환씨, 그리고 집안식구 2명이 함께 운영하고 있다. 가족들이 돼지를 관리하기 때문에 모두 내것같이 모든 정성을 다 쏟아 개체별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 이 점이 다른 종돈장과 비교했을 때 최고의 장점이기도 하다. 때문에 분양종돈중 크레임이 걸리는 돼지가 거의 없다.

성암종돈의 이봉환사장은 「돼지같은 돼지, 좋은 돼지를 생산한다는 집념과 긍지를 갖고 지금



▲ 제2검정소 첫경매 대요크셔 챔피언의 애비. NPD에서 수입.



▲ 성암종돈장의 돈사내부 모습.

까지 농장을 경영해 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능력이 우수한 돼지 얼굴을 보는 재미로 살고 있다」고 밝혔다.

이 농장은 질병예방 등을 위해 생균제를 배합한 펠렛사료와 크럼블사료를 급여하고 있으며, 분만실에서 자돈사에 수용되는 돼지에게는 백신을 제외하고는 항생제 등 약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또한 농가에 순종공급은 가급적 자제하고, 육돈생산농장에 NPD계통외의 피를 30% 섞어서 공급하고 있다.

종돈은 주로 경남 김해지역을 중심으로 F₁형태로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농장규모가 적어 1개월에 20~30두의 종돈밖에 판매하지 못해 구입을 원하는 농장의 수요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다.

성암종돈장은 앞으로 백색계통(랜드레이스, 대요크셔) 중심으로 종돈을 개량·생산해 나가면서 지육율이 높은 돼지, 다산이면서도 사료요구율이 높은 돼지를 생산하는데 주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런 방향으로 종돈을 개량해 나가면 도체등급제가 시행되는 시점에서는 다른 돼지보다 양돈농가 손에 “돈”을 보다 많이 쥐어주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비록 규모는 크지 않지만 가족중심으로 운영되는 성암종돈장이 우리나라의 종돈업계에서 두각을 나타낼 날도 멀지 않은 것 같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과 돼지고기 수입재개 등으로 국제경쟁력 제고가 시급한 이때 종돈개량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국제경쟁력 향상의 첫 걸음인 종돈개량을 위해 성암종돈장의 활동을 기대해 본다. **취재**
(취재 : 김동성)

